

Sermon of the Week:

A Tent in Life, a Tomb in Hope



Passage: Genesis 23:1-6, 16-20 (ESV)

Date: June 8, 2025

Pastor: Dongsuk Chung

Today's passage recounts the story of Abraham purchasing land in a foreign land to bury his wife Sarah after she passed away. After parting ways with Lot, sending Ishmael away, and offering Isaac—his precious son whom he received at an old age—as a sacrifice, Abraham now bids farewell to his beloved wife. Through the life of Abraham, we come to realize that life is ultimately a journey about letting go of all things.

Though we tend to accumulate burdens as we go through life, just as Abraham left his homeland, his relatives, and his father's household, we too must part from the things of this world. The only thing a person can truly possess in this world is the life of God—Jesus Christ. It is for this very purpose that we were created in God's image and likeness and brought into this world: to gain Him.

At first, Abraham tried to bring about the son God had promised through his own efforts. But it was only when he was 100 years old—utterly incapable of doing anything himself—that he received the promised son. And later, he offered that son back to God as a sacrifice. Through these experiences, Abraham came to understand that "death and resurrection" were God's eternal promise concerning him. As it is written, "By faith he went to live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foreign land, living in tents...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that has foundations, whose designer and builder is God" [Hebrews 11:9-10]. Abraham

lived in tents, viewing his life on earth as that of a sojourner, longing for "a better country" [Hebrews 11:16].

Having given up so much throughout his life, Abraham mourned and wept when he finally had to part from his wife in death. In Genesis 23:3, Abraham rose up from mourning over his dead wife. He was able to do this because he believed in the truth of the resurrection. He was able to rise because he believed that something better was ahead—that there was hope.

Next, Abraham approached the Hittites, calling himself "a sojourner and foreigner" and asked for a burial site to lay Sarah to rest. In response, the Hittites said to him, "You are a prince of God among us." This reveals the special status of believers. Though they may seem like mere wanderers by the world's standards and may appear unimpressive outwardly, those who daily die to themselves in faith and manifest the character of Christ are seen by the world as God's people—"a prince of God".

The Hittites did not place much value on graves, but Abraham held burial sites in the highest regard. He paid a great price—400 shekels of silver—for the best tomb in order to bury Sarah. Though Sarah had lived her entire life in tents, after death she was buried in the most expensive tomb. This mirrors the life of Jesus. Born in a manger, living a life with nowhere to lay His head, He too was buried in a rich and beautiful tomb carved out of stone after dying on the cross. In a world where the devil reigns, the tomb becomes both the end of the old creation and the gateway out of a world tainted by sin. Abraham, with eyes fixed on the future, prepared a good tomb. Likewise, we must not seek luxurious homes and comfort in this world, but

prepare for the exit that we will one day face.

Death is the only path to resurrection. Without death, there can be no resurrection.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made us into a new creation. In time, not only Abraham, but Jacob and Joseph too would be buried in the very tomb where Sarah was laid. This shows how much they valued the grave. We, too, must hold death in high regard. For the unbeliever, death means destruction. But for those who believe in Jesus and have received life, death becomes the doorway to eternal heaven.

Even now, in our daily lives, when we crucify the flesh, peace comes. When faced with difficulties, we often become anxious and try to solve problems ourselves. This happens because the self—corrupted by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is still alive. But when we crucify that self on the cross, those problems no longer have dominion over us.

Just as Abraham invested 400 shekels of silver into a tomb, we must also "invest in the tomb" by daily surrendering our old self to death. As the apostle Paul confessed, "I die daily." In the same way, as we die to the old self each day, we experience resurrection and taste true freedom. When we believe, proclaim, and give thanks for the death Jesus died on our behalf, the power of the risen Lord begins to flow into our homes and those around us.

When I die to myself and surrender, the Holy Spirit begins to work. "For we who live are always being given over to death for Jesus' sake,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manifested in our mortal flesh" [2 Corinthians 4:11]. May this word be fully realized in our lives.

심니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6월 22일, 2025년

NASUNGCHURCH.NET

60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3장 1-6, 16-20절

날짜: 6월 8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이방인의 땅을 사서 장례를 치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지했던 롯과 이별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백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란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보내는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삶의 짐을 더해 가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듯이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의 온갖 노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고자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히 11:9-10)"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고 "더 나은 본향"(히 11:16)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아내를 죽음으로 떠나 보냈을 때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지는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일이, 희망이 있음을 믿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헛 족속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며 매장지를 구하고 사라를 장사하려 합니다. 이에 헛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특별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나그네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며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자로 보이게 됩니다.

본문에서 헛 족속은 무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무덤을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은 400세겔이라는 큰 값을 치르고 가장 좋은 무덤을 구입해 사라를 장사합니다. 평생을 장막 생활하며 살았던 사라의 죽은 후에는 가장 값비싼 무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돌 곳 없는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바위를 파 만든 값비싸고 아름다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 하는 이 땅에서 무덤은 창조와 삶의 종지부이자,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좋은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만족할 삶과 집을 준비하기보다, 장차 맞이할 출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훗날 아브라함뿐 아니라 야곱과 요셉도 모두 사라가 장사된 그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무덤을 귀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처럼 죽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죄를 짓다가 믿지 않고 죽으면 멸망이지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내 육신을 죽이면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염려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에 은 400세겔을 투자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자아를 죽음으로 넘기며 '무덤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순간 부활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죽음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포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1).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으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자궁암으로 전이되어 항암치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 과정을 위해
- 피터 송 집사 - 아들(폴 송)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 홍경아 - 한국에서의 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 1-6, 16-2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무덤에 투자한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소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 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나성교회 EM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 a. Ruth and Austin Kuklenski
 -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주간소식

- 다음 주일에 행정위원회 선교부 주최로 각 남녀선교회 후원으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갖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삼나소식 온라인

삼성교회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나소식

